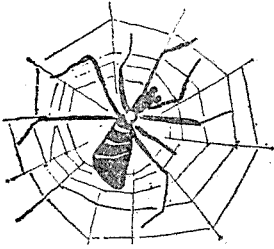


입안에 생기는 병

그 종류와 원인과 증상

<上>

감 기 령



흔히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구강점막(口腔粘膜)의 염증을 한데 일컬어서 구내염(口內炎)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실지로는 이들 구내염의 원인이 많고 또한 복잡하며 때로는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구내염도 구강내에 들어온 여러가지 세균(細菌)에 의해서 이차적감염(二次的感染)을 일으켰을 때에는 같은 형태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바이러스(Virus)나 진균(真菌)에 의해서 또는 전신질환(全身疾患)의 분증(分症)으로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들을 일괄적으로 분류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임상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1. 단순성구내염 <單純性口內炎>

원인 원발성(原發性)인 경우에는 원인을 모르는 때가 많으며 흔히는 입안이 불결하거나 기계적 또는 온열

적자극(溫熱的刺戟)이 유인이 되는 수가 있다.

속발성(續發性)인 경우에는 감기와 같은 상기도의 염증이나 위장장애 영양장애, 빈혈, 수면부족, 과로, 월경

입안에서 냄새나고, 입술마르면 「단순성 구내염」 「카달성 구내염」은 화학약품의 자극이 원인되고

또는 임신, 위황증(萎黃症) 등이 원인이 되는 동시에 때로는 만성(慢性)으로 이행되기도 한다.

증상 입안의 점막(粘膜)이 전체적으로 발적종창(發赤腫脹)되고 타액분비(唾液分泌)가 많아지며 혀에는 백태(白苔)가 끼고 화끈거리며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동시에 입맛이 떨어지고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거나 떨어져 표피(表皮)가 벗겨지는 수가 있다.

2. 카달성구내염

〈Catarrch性 口內炎〉

원인 흔히는 여러가지 구내염의 전구증상(前驅症狀)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밖에도 온열(溫熱)이나 각종 화학약품 등의 자극 및 감기 위장장애, 파르 등이 원인이 된다.

증상 열이 있을 때에는 감기로 오진되기 쉬우며 구강점막이 발적종창되거나 협부점막(頰部粘膜)은 오히려 허영계 혼탁되는 경우가 많고 입술이 마르며 갈라지고 구각염(口角炎)이 생기는 동시에 입안이 화끈거리며 침이 많이 흐른다.



3. 아푸다성구내염

〈Aphtha性 口內炎〉

원인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바이러스(Virus)를 포함한 세균감염(細菌感染)이나 체질이상, 소화장애, 내분비장애, 각종 중독증(中毒症), 신경이나 피부질환 내지는 각종 발열성 질환(發熱性疾患)이 있을 때에 발병된다는 설들이 있다.

증상 단순성구내염에서 보이는 여러가지 증상과 함께 구강, 구개, 구순점막(口唇粘膜)에 원형 내지 타원형의 크고 작은 황백색의 수포(水泡)가 발생하며 이것이 터지면 붉은 들레를 가진 열은 궤양(潰瘍)을 형성하게 된다. 통증을 동반하므로 음식을 먹을거나 말하기가 힘들며 변비, 악하임파선종창 및 38~40°C의 고열을 보일 때도 있으며 특히 초생아의 구

「아푸다性」은 몹시 아프고 말하기도 힘들어 변비가 「궤양性」은 대개 원인 불명으로 시작은 감기처럼

개(口蓋)에 발생하는 것으로 베드나르씨구내염(Bednar氏口內炎)이 있다.

4. 궤양성구내염(潰瘍性口內炎)

원인 궤양을 형성하는 구내염의 총칭(總稱)이나 대개는 원인불명으로 오는 것들을 가리키며 감기나 파로, 폐염, 임진, 장티푸스 때에 많이 발병되며 때로는 유행성으로 오거나 재발되기가 쉽다.

증상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되며 급성일 때에는 고열이 있고 구강점막에는 여러가지 크기와 모양의 궤양을 발생한다. 특히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며 가피(痂皮)가 생기는 동시에 잇몸이 붓고 궤양면은 백색 혹은 황색의 곱(苔)으로 덮여진다.

5. 위막궤양성구내염(偽膜潰瘍性口內炎) · 플라우트빈센씨구내염(Plaut-Vincent氏口內炎)

원인 일명 플라우트-빈센씨구내염(Plaut-Vincent氏口內炎)이라고도 부르며 방추상간균(紡錘狀桿菌, fusiform bacillus)과 플라우트·빈센씨의 스파이러키타(螺旋菌, Spirochaeta)의 공동

「위막궤양성」은 잇몸에서 발병 진행이 비교적 빠른 편, 허약한 5살미만의 어린이엔 무서운 수암(水癌)이

감염으로 생기며 파로, 구내불결, 우치(齶齒), 치조농루(齒槽膿漏) 등이 유인이 되기도 하며 젊은 연령층에 심 많다.

증상 궤양성구내염에서와 대동소이하나 다만 진행이 비교적 빠르며 잇몸에서 초발되는 수가 많고 입에서 냄새가 나며 때로는 편도(扁桃)에서도 함께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6. 괴조성구내염(壞疽性口內炎) · 수암(水癌)

원인 괴조성붕괴(崩壞)를 수반한 구내염의 총칭이며,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써 급성진행성(急性進行性) 괴조성구내염이 있는데 이것을 수암(水癌)이라고 부른다. 특히 허약한 2~5세의 어린이에게서 잘 생기며 홍역이나 백일해와 같은 병이 있을 때에는 더욱 발생되기 쉽고 사망율(死亡率)도 높았으나 요즘에는 거의 보지 못하게 되었다. 원인은 불명이나 궤양면에서 방추상간균이나 스파이로키타 등이 발견 될 때가 많으며 여러가지 화농균(化膿菌)에 의한 혼합감염(混合感染)이 큰 몫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 구강점막에 청적색 또는 자색의 수포가 생기며 이것이 급속히 주위로 퍼지면서 굳은 침윤을 일으키는 동시에 점차로 연화(軟化)되어 암적흑색(暗赤黑色)의 궤양면을 가진 피조를 형성하게 된다. 주위의 점막은 부종상(浮腫狀)으로 심한 증상을 나타내며 급속히 진행되므로써 협부(頰部)쪽으로 구멍이 뚫려서 궤양으로 뒤틀린 잇몸과 상악골(上顎骨)이 노출되어 보기 흉한 상태가 된다. 증상에 비해서 동통은 비교적 적은 편이나 말기에는 높은 열이 나고 냄새가 나며 중태를 나타내서 급기야는 폐염이나 폐농양(肺膿瘍), 패혈증(敗血症)등의 합병증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 수가 많다.

7. 기생균성(寄生菌性) 또는 진균성(真菌性) 구내염

① 아구창(鵝口瘡)

원인 흔히 영양이 나쁜 어린이에게서 아구창균(candida albicans, sacch. aomyces albicans)에 의해서 발생된다.

증상 구강점막에 다소 융기(隆起)

된 백설반상(白色班狀) 또는 분필양(粉筆樣)의 점반(點斑)이 생기며 이것이 커져서 넓게 합쳐지면 때로는 동통이 수반되기도 하며 어린이에게서는 포유장애(哺乳障礙)가 온다.

② 방선균증(放線菌症).

원인 가축(家畜)이나 풀짚(乾草)등을 통해서 방선균(放線菌, actinomycesbovis)의 감염으로 구강 또는 하악골(下顎骨)의 치조돌기부(齒槽突起部)에서 잘 생긴다.

증상 굳은 결절상(結節狀)의 종창을 만들며 이것이 커지고 파괴되면 균괴(菌塊)를 가진 혈액농성분비물(血液膿性分泌物)을 배설하며 누공(瘻孔)을 만들거나 궤양 또는 조직결손을 가져 온다.

한편 궤양면은 위막(偽膜)으로 덮혀지고 이 위막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이를 때면 출혈(出血)되기가 쉽다.

대체로 이상과같은 기생균증은 처음에 잘 치료되지 않으면 코와 목과 기관등으로도 염증이 확대되어서 위험한 때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필자=연세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영양이 나쁘면 「아구창」이, 「기생균증」은 코와 목에 「방선균증」은 굳은 결정상 종창 만들고 출혈이